

트럼프 막말에 속수무책... 한 방 필요한 힐러리

한일 핵개발 허용 주장 등

돌발 행동 대응 전략 필요

자유당 존슨, 제3후보 부상

미국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진영의 대(對) 트럼프 전략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클린턴 캠프가 과거 전략을 답습하는 등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를 효과적으로 공략하지 못하고 있다며 클린턴의 선거전략을 놓고 당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주 클린턴이 트럼프의 납세 내용 비공개를 비난하고, 주택 위기 때 돈을 번 사업가라고 공격한 것을 도마 위에 올렸다.

이 전략은 4년 전 공화당 후보였던 밋 롬니를 꺾어내릴 때 버락 오바마 후보가 사용한 방법으로 효과를 거뒀다.

그러나 클린턴의 공격은 언론에서 크게



힐러리

보도되지 못했다. 오히려 케이블TV에서는 트럼프가 클린턴을 꺾어내리는 용어인 부정직한 힐러리(Crooked Hillary)가 계속 방송됐다.

뉴욕타임스는 클린턴의 선거전략이 트럼프에게는 먹혀들지 않고 있다며 트럼프가 이전의 후보와는 너무나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게 가장 큰 이유로 언급했다.

트럼프는 클린턴의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성폭행했다는 주장을 담은 동영상 공개하는가 하면, 한국과 일본의 핵무기 개발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트럼프

이런 ‘돌출적인’ 트럼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대책을 클린턴 캠프가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 공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민주당 의장인 존 버튼은 “트럼프는 미치광이”라면서 1964년 대선 때 민주당 후보였던 린든 존슨의 광고를 언급했다.

데이지 걸(daisy girl)로 불리는 이 광고는 들판에서 데이지 꽃잎을 때면서 숫자를 세던 소녀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카운트다운에 놀라는 사이 핵폭발하는 장면으

로 대체된다. 당시 공화당 후보였던 배리 골드워트 후보가 당선되면 전 세계가 핵전쟁에 휘말리게 되리라는 것을 시사한 이 광고는 린든 존슨의 승리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회자하고 있다.

이런 파괴력 있는 수단이 동원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여전히 클린턴 캠프는 부정적이다. 트럼프를 겨냥한 새로운 맞춤형 본선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편 미국 정치의 양대 산맥인 민주·공화당 사이에서 제3정당으로 자리잡고 있는 미국 자유당(Libertarian Party)이 29일(현지시간) 개리 존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을 대선후보로 공식 선출했다.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와 민주당의 대선 선두주자인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비호감도가 높은 상황에서 존슨 전 주지사가 ‘제3후보’로서 의외의 위력을 발휘할지 주목된다. 존슨 전 주지사는 4년 전인 2012년 대선에 출마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전국적으로 127만5804표(득표율 0.99%)를 얻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민주당)과 밋 롬니(공화당)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중국, 북한 원조 대가로 핵 실험 유보시켜”

中 매체, 특사파견 빅딜

중국이 북한에 식량을 대폭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북한의 핵무기 실험 계획을 유보시켰다고 미국에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 보론펜(博訊)이 베이징(北京) 소식통들을 인용해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이 지난 17일 노동당 7차 대회 때 대가 중에서도 핵실험을 할 것인바 첩보를 입수하고 평양에 특사를 파견해 이런 빅딜을 했다.

소식통들은 북한은 최근 다시 기근이 발생하자 중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식량과

생필품을 지원받기 위해 대가 중 핵실험 계획 첩보를 고의로 흘렸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문제의 대가 중 핵실험이 북-중 국경 지역에서 실시되면 핵 재앙에 직면할 것으로 보고 협상 특사를 평양에 긴급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측은 평양에서 북한에 회유와 협박, 당근과 채찍을 사용했고, 북한 측은 핵 실험 유보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에 대한 대가로 인도적인 지원 명목의 식량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에 제공될 식량의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29일(현지시간) 프랑스수아 올랑드(오른쪽)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양국간의 베르둔(Verdun) 전투 100주년을 맞아 프랑스 베르둔 소재 두오몽 남굴당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을 붙이고 손을 맞잡았다. /연합뉴스

손잡은 올랑드·메르켈 “몽쳐야 산다”

베르둔 전투 100주년 기념식

프랑스와 독일 정상이 제1차 세계대전 최악의 전투인 베르둔(Verdun) 전투 100주년을 맞아 29일(현지시간) 함께 손을 잡고 유럽의 통합을 역설했다.

프랑스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양국 화해의 상징인 프랑스 베르둔에서 열린 기념식에 함께 참석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13만 명의 프랑스와 독일군 무명전사자가 합장된 두오몽 남굴당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을 붙이고 손을 맞잡았다.

메르켈 총리는 행사에 참가한 4000명의 프랑스와 독일 청소년에게 국수주의적 사고의 위험을 경계하면서 “21세기 도전은 함께 힘을 모을 때만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는 “20세기 재앙으로 우리는 서로 열려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유럽에서 난민 위기와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잇따른 테러로 극우정당 세력 확장,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 등 유럽연합(EU) 통합에 회의적인 시각이 커지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한 것이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조조의 책사 순욱

순욱(荀彧, 163-212년)의 자는 문약으로 영천군 영음현 출신이다. 조조의 참모가 되어 천하 쟁취의 기반을 갖도록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는 후한 순제와 환제 때 명성을 떨친 순욱의 손자로 어릴 때부터 재주가 뛰어났다. 어렸을 때 관상을 잘 보던 하응은 “제왕을 보좌할 재능을 갖고 있구나”라고 평한 바 있다. 189년 효령에 천거돼 공직에 나갔다. 191년 조조에게 몸을 위탁했다. 조조는 “나의 장자방”이라고 기뻐하며 사마에 임명했다.

조조의 참모로서 현재를 받아들이도록 건의한 것이야말로 조조를 여러 제후 가운데 으뜸으로 만들었고 천하 패업의 길을 닦아 준 셈이다. 196년 황건적에 시달린 환제가 낙양으로 돌아오자 현재를 영접하고 허도에 수도를 정하는 문제로 조조 진영이 논란에 휩싸였다.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일량과 문추는 단순히 앞뒤 가리지 않고 돌진하는 무사에 불과해 군대를 지휘할만한 인물이 못된다”며 승리를 예견했다. 그가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내 이를 이용함으로써 열세를 우세를 바꿀수 있는 지략을 겸비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관도전투가 시작되었다. 원소는 군사력 면에서 우위를 점했고 조조는 식량이 다 떨어져 허도로 돌아가려 했다. 그는 편지를 보내 “지금 식량이 적지만 그리 심각하지 않다. 정세를 살펴볼 때 원소의 세력은 고갈되어 반드시 급변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이는 바로 뛰어난 계책을 사용할 때이므로 놓쳐서는 안된다”며 관도에서 버틸 것을 주장했다. 조조는 원소 있는 곳을 급습해 장수 손우경 등을 참수하니 원소는 퇴각했다.

203년 기주 청주 유주 병주가 조조의 수중에 들어왔다. 순욱은 일등 공신으로 황제에게 만세정후에 추천됐지만 그는 사양했다. 조조는 편지를

관도대전 승리 이끌고 천하 쟁취 기반 다져

많았다. 그는 “지금 천하의 수레가 수도로 돌아왔지만 나양은 잡초만 무성하다. 진실로 이 기회를 이용해 천하를 받들어 백성들의 희망에 따르는 것이 큰 슬라다.”며 천하를 모실 것을 적극 주장하였다. 조조는 낙양으로 각 천하를 받들었다. 조조는 대장군 순욱은 시중 겸 상서령이 되었다. 이를 계기로 조조는 천하를 끼고 제후를 호령하게 되었다.

이후 조조는 그와 군사와 국정에 관한 일을 상의하였다. 사람 보는 안목이 뛰어나다고 생각해 인재를 추천받았다. 순유, 종유, 락가 등이 조조의 참모가 되었다.

원소와의 관도 전투에서 그의 지략과 혜안이 크게 빛을 발했다. 조조는 연주와 예주 두 지방을 지배했지만 원소는 공손찬을 패망시키고 유주, 기주, 병주 등 황하 이북 지역을 지배하에 두고 있었다. 공옹 등은 원소와의 싸움은 이기기 어렵다며 반대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반론을 폈다. “원소의 군대는 많지만 군율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참모 전공은 강직해서 뒷사람을 거역하고, 허유는 탐욕스러워 자신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인물이다. 심배는 독단적이면서 무모하고 봉기는 경솔하고 자신만을 믿는 인물이다.

관도대전 승리 이끌고 천하 쟁취 기반 다져

보내 “당신과 고락을 함께 해온 이래 국정을 보좌해 주었고 인재를 추천해 주었다. 은밀한 계락을 짜내기 위해 얼마나 많이 고심했는가.”라며 작위를 권하였다. 이천호의 식음을 받았고 장남 순욱은 조조의 딸 안양공주와 결혼했다.

그러나 조조의 권세가 커짐에 따라 물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그는 조조를 통해 한 황실의 재건을 꿈꾸었고 조조는 새로운 정권의 수립에 무게를 두었다. 212년 조조의 측근 동소 등은 조조의 작위를 국공(國公)으로 높이고 여러 특권을 부여토록 할 것을 그에게 상의했지만 단호히 반대했다. “조조가 의병을 일으킨 것은 조정을 구하고 국가를 안정시키기 위함이다.”는 것이 그의 뜻이었다. 조조는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얼마 후 조조가 그에게 잔합을 보냈는데 열어보니 아무런 음식도 들어있지 않았다. 뜻을 알아차리고 독약을 먹고 자살했다.

“순욱별전”에 따르면 그는 임종이 다가오자 각종 문서들을 다 태워버렸다고 한다. 이 때문에 그의 뛰어난 계략과 비책이 후세에 전해질 수 없었다. 사마의는 “백수십년에 걸쳐 그만한 인재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높이 평가했다.

대지 투자 가치 좋습니다

- 전남 여수시 서교동 668-7, 8번지 서교동 로타리 우리은행 바로 옆
- 대지 260평 (120평 140평 분할 가능)
- 일반 상업지역 / 6차선 도로 접 / 현, 주차장
- 시세 / 감정가 - 23억원
- 용 12억 8천만원 있음 / 법인체 인수 가능
- 매매 - 협의
- 병원 / 사무 / 무인텔 / 상가 / 대형마트 등등 적합
- 1층 조립식 건축 후 상가 임대료 1,200만원 예상
- 주인직매 H. 010-8829-6876

속박 호텔급 대형 모텔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객실 58개
- 시세 / 감정가 - 15억
- 매매 - 10억 (조정가능)
- 경매로 7억 3000만원에 낙찰
- 용 6억 3000만원 있음, 법인체 인수 가능
-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준비중 (공사비 4억 예상)
- 리모델링 후 연 4억 이상 순수익 가능
- 리모델링 후 20억 이상 매매 가능
- 소유자 H. 010-3605-5000

오천경매

- ▶ 투자 하실 분! 공동 투자 가능 연 20% 수익 보장
- ▶ 비법 배우실 분! 특수물건만 취급 교육비 등 1200만원
-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대표 최선규 H.010-3605-5000